

‘빛더미’ F1 땅값 287억 ... 전남도 허리 휜다

경주장 부지 감정이 당초보다 2배 올라 양도·양수 절차 착수... 지역민 세금 부담

전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영암 F1(포클러인) 경주장 부지를 사들이는데 28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경주장을 포함한 삼포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싼데다, 전남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경주장을 인수하기로 한 만큼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떠안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13일 F1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와 경주장 부지 소유권자인 농어촌공사간 맺은 양도·양수 협약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진행중인 영암군 삼호읍 F1대회 경주장 부지(185만2000㎡·56만평)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경주장 부지 가격이 3.3㎡당 5만124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제시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전체 부지를 사들이기 위한 가격은 287억원에 이른다.

부지 가격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카보나 전남개발공사가 농어촌공사에 계약금 29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258억원은 연리 5%로, 1년 거치 7년 동안 분할상환한다. 하지만 이같은 금액은 전남도와 카보가 지난 2009년 삼포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정부의 승인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했던 감정평가액 3.3㎡당 2만6731원에 비해 2만4509원이나 비싸다. 전남도는 당시 감정가를 근거로 F1

경주장을 포함한 J프로젝트 삼포지구 전체 428만9000㎡(130만평)의 부지를 사들이는데 34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전남도가 경주장 준공을 서두르면서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결국 삼포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주장 부지 매입에만 287억원을 쏟아부어야 하는데다, 전남개발공사

가 이 비용을 포함해 경주장을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 세금으로 메워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또 땅값 상승이 향후 삼포지구를 비롯, 다른 지구의 감정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J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암댐 장맛비 부유물 한국 수자원공사 주암댐 관리단 직원들이 13일 화순군 남면 주산교 일대에서 부유물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8~11일 내린 장맛비로 이 일대에만 1100t 가량의 부유물이 유입됐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관문 아파트숲 또 들어서나

광주 최대 규모 광천동 주택 재개발 오늘 도시계획위 심의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인학 학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일대에 지역 최대 규모로 기존 노후주택지역을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전 주변 고층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면적만 약 13만평에 달하는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찬반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광주시는 13일 “14일 오후 열리는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대 42만6380㎡를 지상 19~34층의 아파트 50개 동(5501

세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구 광천동 일대는 지난 2006년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지역주민 간 법정소송까지 가는 논란 속에 무산된 바 있으며 이후 토지소유자 2237명 중 1515명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재개발에 나섰다.

토지소유주 등은 대상지 내 주택 3067동 중 노후 건축물이 1834동(59.8%)에 달해 재개발 요건인 40%를 넘어선 만큼 재개발 요건을 갖췄으며

구역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역은 광주의 관문으로, 재개발 대상지 인근에 이미 1096세대의 아파트단지(1096세대)가 들어선 바 있으며 이후 토지소유자가 ‘고층 아파트 숲’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구도심 일대를 고층 아파트로 개발해나간다면 20~30년 뒤에는 신도심은 물론 구도심까지 온통 아파트만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

■ 광천동 주택재개발 예정지
면적: 426,380㎡
세대수: 5501세대
건축규모: 지하3층 지상19~34층 (50개동)
기아자동차, 광천세상(1096세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주나 건설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 추구를 규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지역별 특성 등의 실태를 감안한 구도심 노후주택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광산구가 관내 송치동 일대 5만6553㎡에 지역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2MW)을 73억8000만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는 안도 상정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림

최고의 농수특산물 장만하고
인기가수 공연 함께 즐기세요



제1회 아줌마축전 9월 2~4일 무등경기장

오는 9월 광주에서 아줌마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광주일보와 9월 2일부터 3일간 광주무등경기장 축구장에서 가정의 핵심이자 지역경제의 소비주체인 주부들을 위해 광주·전남북 최우수 농수특산물과 함께하는 ‘제1회 아줌마 축전’을 개최합니다.

‘제2의 청춘, 아줌마들의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한 이번 축전은 아줌마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인기가수 공연 및 전시는 물론 다양한 참여 이벤트가 마련된 신나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광주·전남북지역 최우수 농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 모든 자치단체와 시·군 농수축협의 특산물 판매부스가 운영돼 행복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光州日報社

‘대부’ 알 파치노 광주 온다

내달 27일 캄코 스튜디오 현장 방문

영화 ‘대부’의 배우 알 파치노가 광주를 찾는다. 광주시는 13일 시와 미국 3D 컨버팅회사 ‘K2EON’이 지난 1월 설립한 한미합작 법인 캄코(GAMCO·Gwangju Advanced Media Corporation)의 남구 송하동 스튜디오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알 파치노가 오는 8월 27일 광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알 파치노는 이날 스튜디오 방문 후 강연대 시장을 면담하고 언론과 인터뷰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광주 방문 전날인 8월 26일에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감시장과



K2EON 대표 이사 톰 스미스와 캄코 CEO 캐년 스피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쇼를 진행했다. 한미 합작법인 캄코는 세계 최고의 3D 기술을 보유한 K2EON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1억 달러 규모의 법인으로 HD 및 3D 컨버팅과 영화 후반부작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USEO 뮤제오

광주를 리더하는 특별한 분을 위한 약속-

이태리의 정통 명품 수입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와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품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신세계백화점 금호빌딩 뮤제오 동성역 동성교차로 회정역 KB국민은행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이태리 명품브랜드 수입사 점보 / 프로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자날레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이트 웨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